

제196회 중앙총회(정기회) 인사말

설악산에서 내려온 단풍이 북악을 색색으로 물들이더니 이제는 벌써 남녘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절과 자연의 빠른 변화는 늘 이렇게 삶의 게으름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불법홍보와 가람수호, 그리고 지역사회는 물론 종단발전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이 자리에 다시 모인 중앙총회 의장스님을 비롯한 총회의원 스님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는 임기 4년을 보내고 새롭게 출범한 제34대 총무원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과 자리는 그대로이지만 이미 제33대는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벌였던 선의의 경쟁도 이미 흘러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다시 한 몸이 되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가 먼저 차별 없는 중무행정 실천을 약속드립니다.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제34대 대한불교조계종 집행부가 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종단 기획실과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종단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사찰의 지역적 편중, 스님들의 급격한 저출가 노령화, 신도들의 지역적 편중과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이제 종단의 모든 구성원이 문중과 교구, 사찰과 지역 등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종단 발전과 불교의 증흥을 위해 함께 탁마해야 합니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이겨냈기에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가 있었다는 황벽선사의 가르침을 새겨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제안했던 교구중심의 종단운영을 포함해 종단 구석구석의 모든 낡은 것들을 드러내 새롭게 설계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4년 이후 고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운영구조와 조직체계, 중앙과 교구, 사찰의 관계 등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선거의 공약사항을 종단의 미

래상에 맞추어 그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 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울러 오는 1월에는 제34대 집행부의 발전계획을 공표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정기회에 불기2558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과 백양사가 산중의 공의로 추천한 고불총림 방장추대, 그리고 총무원 호법부장 임명동의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성심과 성의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총무기관의 예산은 많은 고심과 조정 과정을 거쳐 편성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포교용지에 대한 확보, 10년이 넘는 역사문화기념관의 유지와 관리, 총본산 성역화에 따른 사업 등 종단 목적사업과 제34대 집행부 출범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유심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의 소임을 불교중흥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종단 운영에는 무엇보다 공심과 신심, 원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현실화해 내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삶이 버겁고 생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불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생생하게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회 의원 스님들이 높은 지혜와 너른 방편으로 동참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